# 과목명: 기계학습프로그래밍 학번: 202136057 이름: 함의찬

평소 전공 수업에서 AI나 머신러닝을 배우면서 코드를 짜고 모델을 만드는 데만 익숙했는데, 좀 더 넓은 관점에서 AI 기술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AI 때문에 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AI를 나보다 잘 쓰는 경쟁자 때문에 사라질 것”이라는 부분이었다. 솔직히 AI가 발전하면 개발자가 할 일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끔 했는데, 이걸 들으니 좀 더 현실적으로 와닿았다. 결국 기술 자체보다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당연하지만 잊고 있던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AI의 역사, 특히 규칙 기반에서 학습 기반으로 넘어온 과정은 여러 차례 들었던 터라 이해하기 쉬웠다. 그런데 GPT가 문법을 따로 배우지 않고도 데이터만으로 언어의 규칙성을 찾아냈다는 점은 신기했다. 우리가 배우는 알고리즘이 이런 식으로 작동해서 인간의 언어를 구사한다는 게 흥미로웠다.

영상 후반부에서 AI를 직접 써보라며 세 가지 방법을 추천했다. AI 에이전트로 일 시켜보기, AI로 코딩해보기, 그리고 AI로 영상 만들어보기. 특히 바이브 코딩은 ‘내가 과제하면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론적으로 이번 영상을 통해 AI를 단순히 코딩하고 공부해야 할 기술이 아니라, 앞으로 내내 함께 써야 할 필수적인 ‘도구’로 봐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영상을 보고 난 후, 나는 ‘개발자’라는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제 개발자의 역할은 단순히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AI 도구들을 지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AI가 생성한 수백 가지 결과물 속에서 최적의 것을 가려내는 ‘판단력’,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AI가 정확히 이해하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표현력’이야말로 미래 개발자의 핵심 역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